

이정후, MLB 데뷔 3경기만에 '홈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26)가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개막 3경기 만에 첫 홈런을 신고했다.

이정후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팻코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원정경기에 중견수 겸 1번타자로 선발출전, 8회초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3-1로 앞선 8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네 번째 타석에 등장한 이정후는 샌디에이고 불펜투수 톰 코스그로브의 몸쪽 스윙퍼를 잡아당겨 우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아치를 그려냈다.

타구속도는 168km였고, 비거리 123.7m짜리 홈런이었다.

올해 빅리그에 데뷔한 이정후는 3경기 만에 홈런을 터뜨렸다.

앞선 두 타석에서 범타로 물러난 이정후는 5회 세 번째 타석에서는

3경기 연속 안타...시즌 1호 득점도 기록

김하성, 4타수 무안타로 침묵해 타율 0.167 하락



이정후가 31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MLB) 데뷔 첫 홈런을 터뜨렸다.

희생플라이로 타점을 올렸다.

이정후는 데뷔 3경기 연속 안타에

타점을 기록했다.

이날 이정후는 4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333(12타수 무안타)으로 소폭 떨어졌고, 시즌 4타점, 1득점째를 올렸다.

샌디에이고 김하성(29)은 유격수 겸 5번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무안타 1삼진으로 침묵했다.

세 번째 타석까지 무안타에 그친 김하성은 8회 좌익선상으로 홈런성 타구를 날렸지만, 파울이 선언돼 아쉬움을 남겼다. 이후 3루수 땅볼로 물러났다.

전날 멀티히트의 타격감을 이어가지 못한 김하성의 시즌 타율은 0.167(18타수 3안타)로 낮아졌다.

샌프란시스코는 8회 이정후의 솔로 홈런과 마이클 폰포토의 그랜드슬램을 앞세워 9-6으로 승리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샌디에이고와의 개막전 패배 후 2연승을 달렸다.

/뉴시스



9:30으로 승리한 KIA 타이거즈.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4 신한은행 SOL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9:30으로 승리한 KIA 황동하와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결승골' 손흥민, 루턴전 평점 8.4...양 팀 최고점

토트넘 통산 득점 단독 5위...득점 22위 제라드와 2골 차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홋스퍼 주장 손흥민이 역전 결승골을 기록한 활약을 인정받아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았다.

토트넘은 지난달 31일 0시(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EPL' 30라운드 루턴 타운전에서 2-1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토트넘은 애스턴 빌라를 제치고 4위가 됐다. 두 팀은 현재 승점, 골득실이 같지만 다득점에서 1

점 앞선 토트넘이 높은 곳에 위치했다.

토트넘은 전반 3분 만에 선제골을 내렸으나, 후반 6분에 나온 상대 자책골과 후반 41분에 터진 손흥민의 결승골에 힘입어 승전고를 울렸다.

손흥민은 역습 상황에서 기적 역활을 한 건 물론, 침투 후 정확한 마무리까지 해내며 팀 에이스의 위용을 뽐냈다.

전반전에 슈팅이 골대에 맞는 불운이 있었으나 결승골을 넣고 포효

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 클리프 존스와 함께 159골로 토트넘 통산 득점 공동 5위였던 손흥민은 이날 득점으로 단독 5위로 올라섰다.

또 리그 15호골을 기록하며 모하메드 살라(리버풀), 자로드 보언(웨스트햄)과 EPL 득점 공동 4위가 됐다.

1위는 18골의 엘링 홀란드(맨체스터 시티)다.

아울러 손흥민은 이날 득점으로 EPL 통산 118골 고지를 밟았고, 통산 120골로 EPL 득점 부문 22위를 기록 중인 스티븐 제라드(은퇴) 뒤를 바짝 추격했다.

득점 이후 손흥민은 후반 43분 홈팬들의 박수를 받으며 미드필더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와 교체됐다.

맹활약과 대기록이 여럿 쓰인 활약인 만큼 고행가가 따랐다.

통계 전문 뜻밖의 손흥민에게 양 팀 최고점인 평점 8.4를 부여했다. 또 다른 통계 매체 '후스커어드'닷컴도 평점 8.2를 주면서 양 팀 선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스파스코어'의 경우 다른 매체와 달리 손흥민에게 평점 7.7로 7점 대의 점수를 매겼으나, 양 팀 최고점인 점은 공통적이었다.

호남대 볼링부 전국선수권 여자부 종합 2위

전국개인전 1위 손주은



여자 개인전 1위 손주은.

호남대학교 볼링부가 제42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종합선수권에서 여자부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29일 호남대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열린 전국남녀종합선수권 여자대학부 개인전에서 손주은(스포츠레저학과)이 1위를, 여자부 대학부 5인조에 출전한 박설아·송예진·이하은·박지현·손주은·김수영이 3위를 차지하는 등 여자부 종합 2위를 기록했다.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남사대학부 개인전 경기에서는 남승민(스포츠레저학과)선수가 2위에 올랐다.

여자농구 우리은행 2년 연속 '우승'

정규리그 1위 KB국민은행 누르고 챔피언 등극



여자프로농구 아산 우리은행이 열세라는 예상을 깨고 정규리그 1위 청주 KB국민은행을 누르고 2년 연속으로 챔피언에 등극했다. 통산 12번째다.

위성우 감독이 이끄는 우리은행은 30일 충남 아산이순신체육관에서 벌어진 우리은행 우리WON 2023~2024 챔피언결정전(5전3선승제) 4차전에서 김단비, 박지현 원투펀치를 앞세워 KB국민은행을 78-72로 눌렀다.

청주 원정에서 1승1패를 거둔 우리은행은 인방에서 열린 3·4차전을 내리 잡으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우리은행은 시리즈 전적 3승1패로 두 시즌 연속 챔피언에 등극했다. 통산 12번째 챔피언이다.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www.honam.co.kr

Golf

500평 규모 31타석 및 좌타2개타석 보유
예술과 함께하는 이색적인 골프연습장 선정

QED 골프아카데미 상무점

회원 등록 전
무료
레슨 체험

카톡 플러스 친구
추가 시
골프장 60분
이용권

주니어 골프교실
50%
할인 적용

김넷과 상무점

500평 규모, 31개 타석

'해운대 영무호텔' 숙박권 증정

프리미엄 스위트룸

높이 180cm 대형 탁자

사립시립과 사우나 구비

문의전화 062)374-0088 SNS #QED골프아카데미상무점 #QED골프아카데미상무점 #QED골프아카데미상무점 #QED골프아카데미상무점

광주 유일 100m 트랙을 소유한 호텔급 피트니스 센터

VIP MEMBERSHIP
광주은행 / 기아자동차 / 영무토건 / 바로연 / 영무파라드호텔 / 신성모터스 밴츠 / U탑 유블레스 / 사원병원 / 위더스 웨딩 / 압구정 제이엘의원 / 조선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은 회원 본인 및 가족 20% 할인

LOCATION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64 영무에다움 상가 2F, 3F

HOURS
월~금요일 오전6시~오후12시
토·일/공휴일 오전8시~오후8시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휴관

RESERVATION
전 층목 파라드시티 어플을 이용한 예약 시스템 이용
상세 내용은 어플/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

전국 최대규모 프리미엄 토탈센터 파라드시티

Calorie Bar
Daniele Hair & Body Another
THE 14DAYS

Tennis

Golf

Fitness